



### 우선순위 선택과 성공의 관계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칼럼

우선순위(優先順位, priority)란 어떤 것을 먼저 차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차례나 위치를 말한다. 시간 사용의 우선순위, 사용할 물건 선택의 우선순위, 문제 해결 방법 선택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하며, 실천하는 데 우선순위가 뒤에 있으면 실천과 선택을 받기 어렵다. 우선순위를 잘 못 정하면 성공하지 못하므로 우선순위 결정을 잘해야 성공한다.

돌잔치를 하는 장소에서 돌을 맞이하는 아기에겐 상위에 놓인 돈 연필 실 중에서 한 가지 것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 아기의 선택을 보고 장래 어떤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말을 한다. 돈을 먼저 집으면 부자. 연필을 들면 공부 잘한 학자. 실을 먼저 들면 명이 길어 오래 살 거라고 하는 것이다. 아기는 몇 개의 물건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했으며 그것이 아기의 장래 성공 선택 방향이라고 주변 사람들이 예상한다.

우리는 살아가는데 꿈과 목표를 가지고 성공하고 싶어 한다. 성공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꿈과 목표를 세우는 데 우선순위가 있게 되고 그 우선순위에 의해 꿈과 목표가 선택되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 대부분이 순간순간 선택을 요구한다. 선택에는 우선순위가 정해지고 우선순위에 따라 움직이고 실천되고 있다.

하루의 할 일, 한 달의 할 일, 일 년의 할 일을 글로 써서 늘어놓고 우선순위를 정하면서 순위를 그렇게 정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 결정이며 그 결정에 따라 행동으로 옮겨지고 있다. 이것은 하루의 계획 한 달의 계획 일 년의 계획이 되는 것이다. 그것이 계획대로 되었을 때 성공했다고 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저것이 있는 데서 무엇을 먼저 선택하는가는 중요한 것이며 우선순위가 잘못 선택되었을 때 실패하게 되고 후회가 따르게 된다.

선택이나 결정은 하나를 취하므로 다른 하나를 버리는 경우, 우선순위가 바뀌게 되는 경우, 그 밖에 여러 경우가 생기게 된다. 또한, 선택이나 결정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기도 한다. 과거에 얽매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일이겠으나, 지난 선택에 대한 후회는 남기 마련이다. 기회가 왔을 때 알아볼 수

있는 현명한 판단력과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심 중일 때, 결정의 지혜가 도움되리라 생각한다.

인생은 매 순간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급하거나 여유가 있거나, 중요하거나 가볍거나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 의사결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지식을 전해 주는 책은 많이 있으나, 의사결정의 지혜를 알려 주는 책은 그리 많지 않다. 이제 나도 잘되던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고 본의 아니게 백수의 신세가 되었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인생의 결정이 내 앞에 있게 된다. 이때 다양한 지식보다 필요한 것은 지혜며, 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지혜는 경험에서 나오고 그 경험을 인생의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으며 책을 읽고도 선택과 결정의 지혜를 배우게 된다. 우리의 삶은 언제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다.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운명이 좌우되기도 한다. 선택과 결정의 지혜는 정말 살아가면서 항상 부딪혀야 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작은 사소한 일부터 정말 큰일까지 거기서 우선순위의 선택으로 성공과 실패를 겪어나가고 있다.

삶을 살다 보면 많은 선택과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다. 지나놓고 보면 이렇게 할 걸 하며 후회할 때도 많이 있다. 따라서 우리는 현명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방법을 배우야 하는데 그것은 성공자들의 경험이나 책을 읽고 배울 수 있다. 성공한 사람들과 실패한 사람들을 보면 무엇을 우선순위로 선택하여 행동하며 실천하는 가에서 볼 수 있다.

첫돌잔치 상에 놓인 것을 선택하는 아기의 선택은 경험에 의한 선택은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선택은 경험과 지혜를 동원한 선택이다. 벽돌 한 장 한 장이 정성껏 쌓아올려져 훌륭한 건축물이 되듯이 우선순위로 선택한 하나하나의 일들의 성실한 실천이 모여 성공 목표에 도달하게 된다.

우리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갖추어 해야 할 모든 일을 현명한 방법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꿈과 목표를 세우고 성실히 실천하여 보람된 성공자의 길로 가야 할 것이다.

### 야간의출 옷 색상 선택 이래서 중요하다

기고

김덕형 무안경찰서 몽탄치안센터장 경감



최근 농촌과 도시를 가릴 것 없이 여가시간을 활용하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상황에서 야간에 어두운 골목길이나 농로변에서 차량을 운행하던중 깜깜한 밤길에 어두운 색상의 옷을 입고 앞서 걸어가는 보행자를 발견하고 깜짝 놀람 경험이 있을 것이다.

야간과 이른 새벽시간에는 비교적 차량통행과 활동 인구가 적다보니 어두운 도로에서 보행자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교통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 밤길을 가던 경우 검은 계통 색상의 옷보다 흰 등 밝은 색상의 옷이 보행 안전을 돕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 안타깝다.

실제로 야간에 발생한 보행자 사고의 상당수는 운전자의 눈에 잘 띄지 않는 어두운 계열의 옷을 착용한 경우가 많다는 점도 알아두어야 할 것 같다.

여기에 비가 오거나 안개가 낀 날, 날이 어두운 경우는 더욱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공인기관의 실험에서도 야간에 시속 60km로 자동차를 주행할 경우 흰색은 50m, 노란색은 45m, 빨간색은 35m, 파란색은 28m, 검정색은 18m 지점에 이르러서야 형태 식별이 가능해 브레이크 조작이 가능하다고 한다. 자동차 전조등이 비추는 거리와 범위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옷 색깔이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특히 해가 진 저녁부터 다음 날 새벽사이야 야간 보행이 상당히 위험하다. 아차 하는 순간 사고는 발생한다.

무엇보다 야간 운전시 운전자의 시인성이 감소해 돌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줄어들기 때문에 규정속도보다 감속운행을 하는 것이 상책이며 보행자 또한 어둠과 인도가 없는 밤길을 걸을 때는 반드시 밝은색 계열의 옷을 착용하여 운전자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려야 한다.

더불어 가방이나 신발도 밝은 색상의 제품을 사용하는 현명한 자세가 요구된다. 야간 보행 시 치사율은 주간보다 훨씬 높은만큼 간단한 안전수칙만 준수해도 교통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말자.

외부 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 신고	182	▲인광알코올상담센터	222-5666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광주여성의전화	363-7739
▲아동보호전문기관	1577-1391	▲수도고장신고	121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	▲전기고장신고	123
▲응급의료센터	1399	▲가스사고 신고	383-0019

**호남신문 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 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발행인·편집인 김순열 편집국장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유동3길 26 서주빌딩 101호 (061) 905-2011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연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mpn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투자 리딩방, 고수익 쫓다가 사기피해 당한다

기고

허정호 순천경찰서 경무과 경장



요하다.

최근 신산업이 발달하면서 2차전지 등 급등하는 테마형 주식투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쉽고 빠르게 수익을 얻으려는 심리를 이용해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이른바 '주식투자 리딩방' 사기 조직이 늘고 있다.

주식투자 리딩방이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미리 상승과 수익이 예상되는 주식의 종목을 추천해 주고 수익을 보장한다며 광고를 하는 업체를 말한다.

감독 당국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투자 리딩방 업체라면 사기피해를 주의해야 한다. 사기 리딩방은 업체가 미리 선행매매를 해놓고, '일정한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허위 과장된 내용으로 광고를 하며 피해자에게 손해를 입힌다.

또한 2차 피해에도 취약할 수 밖에 없다. 지난 11일에는 투자로 손실을 본 리딩방 회원에게 접근해 수십억원을 가로챈 보이스코싱 조직원 일당 7명이 재판에 넘겨지기도 했다.

주식 리딩방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상적인 투자 자세가 필

요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므로, 현실적인 수익 목표를 가지시고 너무 과도한 약속에 속지 않도록 주의한다.

3. 금융감독원 등록 여부 확인: 금융감독원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의 경우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다. 4. 사전조사와 리뷰 확인: 주식 리딩방에 가입하기 전에 해당 업체에 대한 사전조사를 진행하고, 다른 이용자들의 리뷰 확인이 필요하다.

투자자들의 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현명한 투자 자세로 우리 사회에 올바른 금융 질서가 바로 서길 기대해 본다.

##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부형 압력 등 편견된 침묵으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왜곡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